

뉴스홈 | 최신기사

# [우크라 침공] 국경넘어 피신하는 우크라이인들 "우리 어떡해요"

송고시간 | 2022-02-25 09:31

윤종석 기자  
 기자 페이지



## 공습경보 발령 속 가방 들고 바삐 걸어가는 키예프 시민들

(키예프 AFP=연합뉴스) 가방을 든 피란 차량의 사람들이 24일 아침(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 도심의 키예프-파사지르스키 철도역 인근을 바삐 걸어가고 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내의 군사작전을 승인한 이날 키예프 시내에서 공습 사이렌이 울리는 등 우크라이나 전국 곳곳이 러시아군의 미사일 공격과 포격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2.2.24 alo95@yna.co.kr

(서울=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수천명의 우크라이나인이 러시아의 침공을 피해 이웃 나라 폴란드와 헝가리 등지로 도망치기 시작했다.

24일(현지시간) AFP통신과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폴란드와 헝가리, 슬로바키아, 루마니아 등으로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대피하고 있다. 이들 국가는 동유럽의 유럽연합(EU) 소속국이며 한때 소련이 이끌던 바르샤바 조약국이기도 하다.

러시아는 23일부터 우크라이나에 대한 육해공 전방위 공격을 퍼붓고 있다. 이는 2차 대전 이후 단일 국가가 다른 나라에 단행한 공격 중 최대 규모라고 로이터는 전했다.

GS SHOP  
 특급 혜택 받으세요! 5,000 10,000

폴란드의 접경 도시 메디카에는 수십명의 우크라이나인이 이날 오전 짐을 끌고 걸어서 도착했다. 국경 검문소에는 차량의 긴 행렬이 만들어졌다.

요약 댓글 댓글 댓글 댓글 댓글

1010회  
 오피니언 열거 9 12 15 25 34 36 + 3

## 핫뉴스 →

日 공주와 결혼한 대학 동기, 뉴욕 변호사 시험도 불합격

여성 전용 교도소라는데...美 서 동료 재소자끼리 성관계 후 임신

"마지막 순간 마음 바꿨다" 2015년 파리 테러범이 밝힌 '그날'...

박진, 광우병 사태 때 美당국자에 "한국에 너무 많은 민주주의"

한 육사 생도 영 왕립사관학교 첫 졸업...여왕 "양국...

프로야구 LG-SSG전 오심 내린 심판, 2군 강등...

가원전 2-3세기 마야 달력 파편 발견..."가장 오래...

한국 유튜브, 촬영 중 실수로 우크라 국경 넘었다 ...

GS 칼텍스

가족찾기 사연 보러가기

건강하고 소중한 내 아이의 첫 보험  
 무배당 우체국저축은행 어린이보험

coway  
 코웨이 아이콘 정수기





#### 집 들고 지하철역 몰린 우크라이나 키예프 시민들

(키예프 AFP=연합뉴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해 군사 공격을 개시한 24일(현지시간) 오전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의 한 지하철역 승강장이 집과 가방을 든 시민들로 가득 차 있다. 이날 우크라이나 전역에서는 폭발음이 들렸으며 드미트로 쿨레바 외무장관은 트위터를 통해 "러시아의 전면 침공이 시작됐다"고 밝혔다. 2022.2.24 leekm@yna.co.kr

폴란드인 올레나 보구카(39)는 로이터통신에 우크라이나인인 남편과 자녀를 4시간이나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연락이 닿질 않는다. 전화도 되지 않고, 애를 어떻게 찾을지 모르겠다. 어떡해야 하는지 알 수가 없다"고 발을 굴렀다.

24일 메디카 검문소를 통과한 한국인 A씨는 연합뉴스 특파원에 게 "검문소를 통과하는 데 4시간이 넘게 걸릴 정도로 피란민이 많았다"라고 말했다.

인접국들은 피란민이 대거 유입하자 접수처를 만들고 이들을 지원할 병력을 국경 지역으로 보내고 있다.

폴란드는 신속히 피란민을 받아들이기 위해 우크라이나에서 들어오는 입국자에 대한 코로나19 격리도 없었다.

폴란드는 키예프에서 가장 가까운 유럽연합(EU) 회원국으로 100만명의 우크라이나인이 살고 있다.

폴란드는 부상자 치료를 위해 의료 기차를 준비하고 있고 병원 1천230개를 추려놓은 상태다.



#### 폴란드에 도착한 우크라이나 피란민들

(프세미실[폴란드] AP=연합뉴스) 우크라이나 피란민들이 24일(현지시간) 폴란드 프세미실의 수용 센터로 개조된 기차역에서 식사를 보급받고 있다. 재판매 및 DB금지



We Do Technology

#### 에디터스 픽 Editor's Picks

##### ● 영상

▶ 01:59

[영상] 윤석열, 안철수 '패상' 질문에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

##### ● 뉴스

오늘 거리두기 해제 발표, 2년 1개월만 종료...마스크 쓰는 그대로

尹당선안 안위원장 만찬 회동... "공동정부 한치의 흔들림 없어"

헝가리에도 멀게는 키예프에서 출발한 우크라이나 피란민이 베레그수라니 등 접경도시를 통해 속속 도착하고 있다.

일부는 차를 타고 왔지만 집을 끌고 걸어온 우크라이나인들도 목격됐다.

토머스 보드나는 "누구도 징집돼 죽기를 원하지 않을 것"이라며 "도망갈 수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우크라이나 몰도바와 흑해 인근 지역에서 탈출한 수백명의 피란민은 배를 타고 다뉴브강을 건너 루마니아로 들어왔다.

슬로바키아 국경에선 우크라이나에서 몰려온 차량이 검문소를 통과하기 위해 12시간 이상을 대기해야 했다.

슬로바키아는 접경지역에 1천500명의 군인을 배치해 피란민 수용에 나섰다. 동부 코시체주는 피란민 수용을 위해 체육관 60곳을 수용시설로 확보했다.

체코에선 철도청이 피란민 이송을 위해 6천개의 좌석과 침대를 갖춘 기동차(내연기관으로 운행하는 철도차량)를 준비했다.



#### 우크라이나 응원하는 루마니아 어린이

(AP=연합뉴스) 루마니아의 한 어린이가 24일(현지시간) 부쿠레슈티 우크라이나 대사관 앞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항의 집회에 참석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이웃 국가들은 우크라이나 피란민에 대한 아낌없는 지원과 함께 러시아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공언했다.

체코는 러시아에 대한 비자 발급을 중단했고 러시아 영사관 2곳을 폐쇄했다.

밀로시 제만 대통령은 오랫동안 친러 관계를 유지해 왔으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을 '미치광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폴란드 정부는 러시아에 대해 가장 냉혹한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유엔난민기구(UNHCR) 사비아 만투 대변인은 "이미 10만명 이상이 집을 떠나 대피한 것으로 파악된다"라며 인접국에 적극적으로 국경을 열어 피란민을 수용해줄 것을 촉구했다.

banana@yna.co.kr

尹 당선인 "韓, 위상 맞게 외교정책 강화...美와 더 강력한 동맹"

'검증의 시간' 시작됐다...한동훈, 청문회 준비 돌입

"의학에 뜻" 정호영 아들, 학부 4년간 관련과목 2개 수강

#### 댓글 많은 뉴스

- 1 김건희 여사 팬카페, '악성 댓글' 누리꾼들 경  
137  
찰에 고발
- 2 정호영 자녀, 경북의대 편입전 아버지 있던 경북  
60  
대병원 자원봉사
- 3 '유퀴즈'尹당선인 출연 논란..."프로그램 취지와  
59  
안 맞아"(종합)
- 4 두문불출 이재명, 이발·영색...조기등판론 속 활  
50  
동재개 예열?
- 5 문대통령, 손석희와 대담...靑 "임기 5년 소회 밝  
38  
힐 예정"

뭐하고 놀까? #홍→

유튜브로 보기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2/02/25 09:31 송고

#우크라이나 #피란민

당신이 함께 보면 좋은 콘텐츠

당신이 좋아할 만한 콘텐츠

현장 영상 →

▶ 01:18

[영상] 입 발 묶인채 두 눈만 열쫓쫓...누가 확대했나

[영상] 곡사포-수송헬기-장갑차...美, 꺼쫓던 무기들  
결국 우크라이나

▶ 02:22

[영상] 미국 최고위급 키이우 방위  
링크 등 후보군"

당신이 함께 보면 좋은 영상

유튜브 채널



SNS



뉴스홀 최신기사 정치 북한 경제 산업 사회 전국 세계 문화 라이프 연예 스포츠 오피니언 사람들

비주얼뉴스	영상포토화보#D그래픽	뉴스상품	프리미엄뉴스뉴스리더인타넷맞춤형보도자료해외배포보도자료국내배포
테마별뉴스	핫뉴스특뉴스주요뉴스긴급뉴스단독뉴스많이본뉴스	출판물	이매진연합연감영문연감한국인물사전단행본월간마이더스
뉴스+	이슈돋보기팩트체크재난포털날씨주요신문특뉴스사설이시각헤드라인	광고	KTX 열차AREX 공항철도모바일PC홈페이지출판물
모바일 뉴스	모바일웹모바일앱	콘텐츠 판매	보도사진이미지그래픽동영상인물
외국어	English中文日本語عربيEspañolFrançais	관련사이트	연합뉴스TV인포맥스한민족센터K컬처기획단(K-ODYSSEY)채움IR클럽#홍

계약사제휴문의